

## 어린이 포교 길 넓어진다

조계종 전담팀 신설, 업무 일원화·노하우 전수 등 현장지원체제 구축

서울 '보' 사찰은 '어린이 포교를 하고 싶다'는 주지스님의 원력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할 어린이들이 없어 고민이다. 스님은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법하게 진행할 지도교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처럼 원력은 있어도 방법을 못 찾아 난감해지는 스님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포교의 길이 넓어진다. 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에 어린이포교전문가들이 파견돼 컨설팅과 함께 법회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 불자 수가 줄어드는 사찰의 문제점을 진단해주기도 한다. 통일된 어린이법회 매뉴얼을 따라 의식집전을 하고, 계절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알찬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조계종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포교원 내에 '어린이·청소년팀'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포교전략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

국불교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포교 전담부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미 조계종 기획실과 포교원, 교육원과 교계 어린이·청소년단체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실무팀이 지난 7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청소년팀' 운영 방안을 논의해 온 상태다.

'어린이·청소년팀'은? 조계종은 8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청소년팀 인원구성 원칙을 확정했다. 어린이·청소년팀은 포교원 산하에 포교원 내 1명, 타부서 파견 전문가 1명, 어린이·청소년 단체 실무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9월 내 어린이·청소년팀이 발족하면 그간 팀구성을 위해 논의해왔던 실무팀은 해체된다. 어린이·청소년팀은 향후 △산재했던 어린이·청소년 포교 업무 일원화 △어린이·청소년 포교 지도인력 양성 및 컨텐츠 개발 △어린이·

청소년 포교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어떤 일 하나?**  
실무팀은 어린이·청소년팀이 발족하는 9월에 맞춰 당장 실시하게 될 '하반기 계획'과 향후 2~3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해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첫 행사로 사부대중을 모아 종책을 발표하고 어린이포교의 의지를 다질 '어린이포교전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포교전진대회'는 10월 중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며 어린이포교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하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발표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쌍포교의 매뉴얼이 될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침서>도 발간된다. 그간 어린이법회의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2001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현 사단법인 동륜)가 <어린이법회 지침서> 1천부를 발간했던 것이 유일했다.

중장기 실천과제로는 '조직과 인력개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목·이하 불레협)가 9월부터 운영하게 될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가 문을 열면 이런 격정이 사라지게 된다. 교사대학 서울캠퍼스와 기존의 영남권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법회를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서울캠퍼스는 조계사교육원에서 9월 13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이 정상화되면, 매년 약 1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

**어린이 품으로 '찾아가는 법당'**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청소년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찾아가는 법당' 프로그램. 동륜과 파라마타, 불래협 등이 운영하게 될 '찾아가는 법당'은 한 마디로 어린이포교간담지원팀이다.

간담지원팀은 어린이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에 투입돼 법회 개선을 돕고 지도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또 불자 수가 줄어드는 어린이법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간담적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륜이 운영해오던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로, 동륜이 실무팀에 적극 제안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륜은 전국의 사찰을 A-E등급으로 나눠 차별화된 법회 지원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이은비 기자 renny@buddhapia.com



한국 최대 규모의 불교 전문 전시회

### 2007 한국불교박람회

본사와 (주)제이컨벤션에서는 불교관련산업과 불교문화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는 한국불교발전 위한 정보와 문화의 장으로서 불교계 일반대중에게는 다양한 불교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업체에는 업체성장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7. 3. 22(목) ~ 3. 25(일)
-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 주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 참가신청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Tel. 02)2004-8213~7 / Fax. 02)737-0696  
Email. jabi1522@empal.com

## “쉬운 우리말로 예불드려요”

'한글통일법요집' 완간... 의식의 한글화·통일화 전기 마련

이제부터 조계종 스님과 신도들은 각종 불교의식 때 '한글'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된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교의식의 생활화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통일법요집>은 2005년 4월 발간된 <천도·다비 의식집>과 이번에 나온 <상용의식집> 두 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용의식집>에는 일용의식으로 도량식·종송·상단예불·각단예불, 상용의식으로 삼보통칭·미타칭·지장칭·관음칭·약사칭·미륵칭·나한칭 등이 들어있다. 부처님오신날 발원문을 비롯해 각종 행사의 발원문도 소개해 활용도를 높게 했다.

<한글통일법요집>은 통독대 국문과 정우영 교수 등이 참여해 4·4·5조의 운문적 문체를 기초로 했다. 이에 따라 의식을 집전할 때 염송을

운송에 따라 여법하고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집전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였다. 의식을 집전하는 법사와 이에 따르는 대중의 행동요령도 적시했다. 그 동안 불교단체나 사찰들은 개별적으로 <한글법요집>을 편찬해 의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의식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또 지금까지 불자들은 각종 의식 때 뜻도 모르고 집전하는 스님의 묵탁소리나 염불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의식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진정한 염원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이제 조계종도들은 불교의식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식을 통한 불자로서의 삶과 종단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토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한글통일법요집>

> 완간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은 의식의 한글화·통일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각 불교단체 및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의식을 한글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강제성을 띄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각 사찰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독특한 예불의식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교국장 재현 스님은 "행차 교육 시 <한글통일법요집>을 공식 교재로 채택해 줄 것을 교육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사 때부터 통일된 교재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자연스럽게 한글로 된 통일 불교의식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현 스님은 또 "각종 사찰각 교재를 개발해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솔로 솔솔~ 사천왕님 먼지떨기

구례 화엄사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사천왕문, 금강문에서 36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소제불사를 실시했다.

문화재 전문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보문화재 소제불사를 맡은 조계종 김홍식 성보전문위원(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최대 적은 습기"라며 "먼지가 끼면 수

분을 머금게 되어 훼손 우려가 있어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엄사 사천왕문과 금강문은 조선 선조기(1632년) 백암 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하면서 건립된 전각으로 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소제불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천룡 스님

시방세계 9면  
갑사 아토피Zero 산사학교

종립대 처학과 안만느냐? 4면  
원각사 재가는강 7면  
이영숙 코모도호텔 대표 10면  
앙갯따리 니까야 한글본 22면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회관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 제171회 중앙총회(임시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총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71회 중앙총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집회일시 : 불기2550(2006)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 집회회기 : 불기2550(2006)년 9월 4일(월) ~ 9월 8일(금)(5일간)
  - 집회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2층 국제회의장
  - 주요인건
    1. 종헌 개정 및 중법 제정건의 건
    2. 기타

※ 제171회 중앙총회(임시회)는 제13대 중앙총회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총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13대 중앙총회 임기를 마감하는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스님들께서는 제13대 중앙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총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0(2006)년 8월 23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